

오피니언

특 별 기 고

박 민 수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경남지역 선진 농가의 초청으로 진주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농장 인근 농업인들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남은 경상도 같이 산간이 아닌 넓은 평야지와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3년 10개월 전,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다가 고향 전남으로 오면서 가졌던 최대의 의문사항을 경남의 농업인들이 지적인 것이다. 그렇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옥한 농토와 깨끗한 물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전국 농산물의 20%를 생산하는 식량 공급기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가 전국의 13%에 이르는 전국 제일의 농도(農道)이다.

그러나 전남은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정부수매에 있어 생산성이 낮고, 소득이 낮은 농작물들을 많이 재배해 왔다.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 상품화하는 과정이 타지역보다 늦어서 농도이면서도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시대적 관심이 높아지자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정방향을 ‘친환경 농업’으로 확정했다. 지난

농도 전남, 농가소득 높이려면

2006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2010년 2차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농업인이 함께하는 ‘3농 정책’도 함께 추진하면서 보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유통시설 등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한편으로 부임 후 나는 잘 사는 전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연구·지도·교육사업을 전개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협의회에서 전남의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도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전국 최하위였던 전남의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10%나 증가한 가구당 평균 3042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8만1000원이 많았다. 2003년도에 전국 2위였던 농가부채도 매년 조금씩 줄어 지난해에는 1671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340만8000원이 감소해서 전국에서 가장 빛이 적은 지역이 됐다.

이러한 성장은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친환경 농업이 서서히 빛을 발하면서 청정지역 전남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그동안의 입소문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안정적 판로가 개척되고 가공, 유통 등이 확대되면서 농가수입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앞으로 전남 농업이 농도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농가소득을 가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해 더욱 안전한 농산물 생산, 천연 자원의 활용 등 지금까지 추진한 친환경 농업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야 한다.

유기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면서 가공·유통까지 확대 접목해 더욱 높은 상품가

치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기존의 작목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고소득작목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도전정신을 가질 때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그동안 식량생산 공간이었던 농촌을 관광·휴양의 공간으로, 더 나아가 정주공간으로 바꾸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 도시 속의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과 건강을 주는 치유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 FTA 체결 등으로 농업·농촌은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경쟁력의 원천은 풍요롭고 넉넉함이 아니라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려는 절실한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절실함은 적극성과 자신감을 낳는다.

농업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제부터는 농업을 투자할만한 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자신감을 가질 때 농도 전남은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가소득이 낮았던 부분들을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꼼꼼히 따지고 분석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아갈 때 좀 더 나은 복지농촌이 건설될 것이라고 믿는다.

전국에서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농도 전남이 되려면 전남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하리라고 확신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장·농업경제학 박사>



강 대 석

‘빛과 그림자’는 요즘 방영되고 있는 MBC-TV의 월, 화 드라마이다. 드라마의 내용이 70~80년대의 암울했던 군부독재 시대를 회상할 수 있는 데다, 방송시간대가 밤 열 시 무렵이어서 자연스럽게 많이 보게 된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대략, 70년대 말 유신 독재와 80년대 신군부시절, 시절 읍내의 한 건달청년이, 같은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며 청와라 실장인 정치인과 그 일당에 의해 아버지와 재산을 잃게 되자, 마음을 잡고 서울로 올라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온갖 음모와 탄압 속에서도 타고난 흥행감각

빛과 그림자

과 원칙을 지키는 신념으로 어렵게 성공하여 복수한다는 내용이다.

‘빛과 그림자’가 뜻하는 것은 권력의 뒤에는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로, 이 드라마가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극의 내용이 주는 흥미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암울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을 깨우쳐주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즉 유신정권과 신군부 시절, 대마초 사건이나 삼청교육대처럼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죽이고 고문하던 독재정권에 대한 무서움을 회상하면서,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아픔을 추억하고 웃을 수 있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웃고 지나치기에는 각급의 현실을 볼 때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 속의 이야기가, 3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

난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지도소 공격이나 민간인 사찰사건 등에서 보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권력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드라마가 대선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18대 대통령선거를 6개월 남짓 앞두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는 누가 될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다. 흔히 지도자의 유형을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분류하고, 저개발 국가에선 권위주의형 지도자를, 중진국 이상의 사회가 안정된 국가에선 민주형 지도자가 요구된다고 한다.

또 노자의 도덕경에는 지도자의 유형을

“太上 知有之, 其次 親而譽之, 其次畏之, 其次侮之”라고 하였다. 즉 가장 좋은 지도자는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지도자’이며, 그 다음은 ‘사람들이 좋아하여 친하게 지내는 지도자’이며,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이며, 최하위는 ‘사람들이 비웃고 모욕하는 지도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지만, 18대 대통령의 모습은 민주적 리더십의 소유자로 사람들이 좋아하여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지도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빛과 그림자’에서 연상되는 권위주의의 시절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국민을 존경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지도자, 특히 남북 문제, 교육문제, 농업문제 등에 대하여 인식이 깊고,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잘 아는 국정과 지방정부를 운영해 본 지도자가 이상적일 것 같다.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그것은 순전히 국민들의 몫이다. <시인>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강현실 기반의 관광 및 지리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수변구역에 대한 점용허가나 인·허가 등의 업무와 관련해 3차원 공간정보에 토지 및 각종 기본지리정보를 연계할 경우보다 신속한 하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며, 친환경적 수변 지역을 조성시 공간정보를 이용한 조망권 분석이나 지형각제 모델링 기법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4대강 수변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에서는 ‘스마트 리버(Smart River)’ 정보관리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하천관리시 필요한 이수·치수·환경생태 측면에서 필요한 하천 공간정보의 항목과 표준화 내역, 활용극대화 기술을 개발중에 있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4대강 수변공간을 관리하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국민들의 공간요구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세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주비전대학교 지척부동산학교 학과장>

대한 관리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우스갯소리지만 90년대까지는 청소년들의 흡연 장소가 야산이었다. 그러던게 술술 동네 골목길로 나오더니 이제는 길거리와 PC방 등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커피전문점이나 카페 등으로 다양화된 것이다. 즉 대중에 피우는 세상이 되었다.

커피전문점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시하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거기에 와서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우리집 자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 1명의 청소년 흡연자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홍명호·광주시 서구 동암동

시 설

여수박람회 ‘빛잔치 우리’ 불식시켜라

여수박람회가 11일로 개장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많은 불거리에도 불구하고, 흥행 부진으로 ‘적자 박람회’ 우려를 낳고 있다. 자체 수입으로 7380억원을 벌어들여야 하지만 관람객이 저조해 목표 달성조차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문제를 드러낸 조직위의 운영시스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0일 현재 누적 관람객은 149만3190명이다. 이는 하루 5만여 명 꼴로, 입장수입은 341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조직위는 93일 전시기간 동안 8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1832억 원의 입장수입을 계획했다. 목표를 위해서는 남은 기간 하루 1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해야 하지만 장마 등 여건으로 볼 때 어렵도 없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체수입 목표는 입장수입 이외에도 회장 960억 원, 기념주화 50억 원, 시설임대 199억 원, 시설유지 548억 원, 박람회장부지 매각 3566억 원 등으로 채울 계획이나 회장·

광고 등 수입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때문에 박람회가 자칫 ‘빛더미’에 나앉게 되고 그 부담이 사후활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자체수입에서 정부차입금 4846억 원을 변제하는 것도 부담이다. 사후활용 원활화를 위해 정부의 후속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조직위의 즉흥적인 운영도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예약제 대신 선착순제로 전환했으나 장시간 줄서기 등 또다른 민원을 낳고 있다. 도심외곽 환승주차장의 변경, 야간 입장권제 도입도 전형적인 뒷북행진이다.

박람회는 아직 2개월 이상 남아 있다. 조직위는 운영부실 등 그동안 드러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흑자 박람회로 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사후활용이 중요한 만큼 정부차원의 후속지원책도 적극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방학 중 보충수업 학교 자율에 맡겨야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상위권 성적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대입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고등학교의 여름방학 보충수업 시간을 전교조와 협약을 근거로 대폭 축소하기로 해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고교에 보낸 ‘방과후 학습 운영 안내’ 공문에서 여름방학 보충수업 시간을 1·2학년은 60시간, 3학년은 80시간으로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 20시간씩 줄어든 것으로 1·2학년은 25%, 3학년은 20%가 단축된다. 장휘국 교육감 체제 이전에는 최대 100시간 이상 보충수업을 진행해왔다.

수업시간 단축은 지난 5월 전교조 광주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충수업 시간까지 특정 교원단체와 협약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전교조는 광주지역 교사 가운데 35%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또 최근에도 각 고교에 정교수업 이외의 방과후 학습, 야간 자율 학습 시간 준수, 0교시 수업 금지 등 위반 사항이 큰 학교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방학 중 보충수업이나 방과후 학습은 학생들이 미진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다. 학습량이 많다고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량이 줄면 학업 성취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학습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 전남도교육청은 방학 중 보충수업 시간을 자율에 두고 있지 않거나,

시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우려됐던 고교 학력 저하가 현실화되면서 ‘실력 광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정책의 주안점을 뒀아 할 것이다.

無 等 鼓

최근 언론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함께 등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육사 사열논란’, 노 전 대통령은 ‘사돈 비자금 구설’로 신문과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전두환씨의 경우 육사(11기)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전씨는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육사생도들의 지지 행진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조한 상품의 강영훈 육사 교장(국무총리 역임)은 쿠데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1961년 서울대 문리대 ROTC 교관으로 재직 중이던 전두환 대위는 후배 육사생도들을 회유해 쿠데타 지지행진을 벌였다. 이 일로 전씨는 박정희의 눈에 들어 당시 최고 실세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비서관에 임명된 후 출세가도를 달린다.

그는 대통령 경호실 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권부의 핵심을 맴돌더니 ‘1980년 광주’ 이후 최고 권좌에 올라 철권을 휘두른다. 따라서 전씨는 육사

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겨 이번 생도들의 행진에 거수경례로 답했는지도 모른다.

노태우씨는 전씨에 비해 나약한 이미지로 투영됐다. 군부 내 사조직인 하회회를 주도했던 전씨가 화끈한 성격의 ‘마초’(남자다움을 지나치게 과시하거나 우월하게 여기는 남자)였다면, 노씨는 항상 2인자의 길을 걸어왔다.

노씨는 밀린 추징금을 납부할 요량으로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에 230억원이 아니라 654억원이 있다고 진정해 세간의 비웃음을 샀다. 사실 이러한 차액이 국가에 환수돼 추징금으로 대체된다.

두 사람의 스타일은 크게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은 닮았다는 사실이다. 잘못된 군사문화에 대한 비판에 맞서기라도 하려는 듯 거수경례로 배짱을 부린 전씨. 끝까지 치졸함을 드러낸 노씨. 둘 다 물엿치(沒廉恥)로 부활한 셈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全·盧의 ‘부활’(?)



기 고



이 근 상

경남 남해 가천 마을의 다랭이 논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랭이 논은 경사진 산비탈을 개간해서 만든 층층식 계단논이다. 밭농사도 제대로 짓기 어려운 땅에 어떻게든 논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의 노력이 다랭이 논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냈다. 과거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조상들의 활동 산물이 현대에 와서 멋진 주변환경과 어우러져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려면 두 눈을 모두 활용해야 하듯이, 다랭이 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광객의 측면뿐만 아니라 국토의 척박한 환경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청소년들 마음놓고 흡연하는 커피전문점 금연했으면

시내에서 주로 커피전문점을 자주 이용한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커피전문점을 찾는다. 커피전문점 대부분은 유리 칸막이를 이용해서 흡연석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그래서 인지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아무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운다.

옛날 얼굴의 청소년들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주고 받고 자연스럽게 흡연을 한다.

청소년들은 마음대로 담배를 필 수 있고 오랫동안 수다를 떨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커피전문점을 흡연 공간으로 애용하는듯하다.

이뿐 아니다. 톰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여가서도 밤마다 재떨이가 구비돼 있고 여고생들이 버섯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주문을 하는 것도 자주 본다. 톰카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인근에 몰려 있는 것도 청

소년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또 이런 업소들의 종업원들은 아르바이트 신분이라 고액의 불만이 접수되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을 봐도 아예 모른 척 하게 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다 보니 합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청소년 흡연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한다. 다만 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한 경우만 처벌할 뿐이다. 그러니 규정상 청소년 흡연에 대해 방은 되지만 흡연 장소가 되는 흡연 환경에